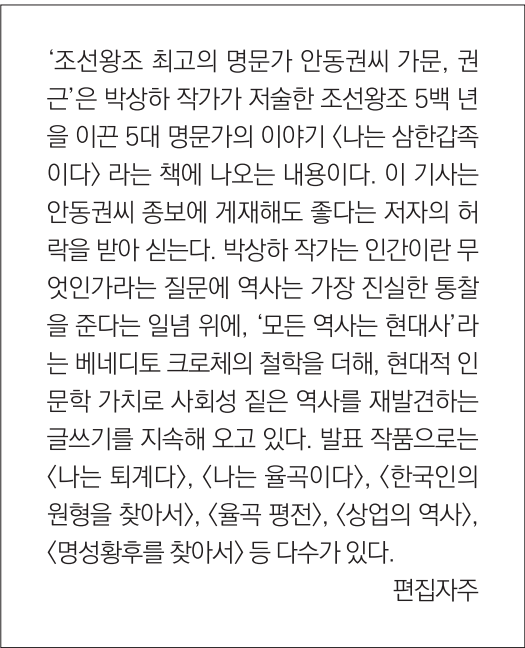


조선왕조 최고의 명문가 안동권씨 가문, 권근



양촌 권근 삼대 묘소

열 정승보다 대제학 한 명이 낫다
조선시대 대제학은 ‘벼슬의 꽃’ 불렀다. “정승 열 명보다 대제학(정2품) 한 명이 낫다”라는 말이 있었다. 권좌의 정상이라 일컫는 영의정(정1품)조차 부러워하는 벼슬이었다. 예부터 국반國班(양반 중의 양반)이라고 널리 칭송받았다. 3대가 선품을 베풀어야 대제학 한 명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 정승과 같이 단순한 사회적 성취보다는 비록 품계는 아래일망정 정신적 가치 곧 학문을 숭상한 까닭에서였다. 대제학은 국가의 최고 문학, 예컨대 중요한 외교 문서나 임금의 교명敎命, 과거 등을 통할했다. 뿐만 아니라 학문에 관계되는 제반사를 모두 관장했다. 대제학을 끝의 저술대 문형文衡이라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같은 벼슬의 꽃, 열 정승보다 대제학 한 명이 낫다고 한 문형을 2명이나 배출한 가문은 모두 13개였다. 3명을 배출한 가문은 11개였고, 4명을 배출한 가문은 안동 권씨, 경주 이씨, 한산 이씨, 연일 정씨, 양주 조씨, 남양 홍씨 등 6개였으며, 5명을 배출한 가문은 청송 김씨, 풍양 조씨 등 2개였고, 6명을 배출한 가문은 대구 서씨, 덕수 이씨 등 2개였고, 7명을 배출한 가문은 안동 김씨, 의령 남씨, 연안 이씨, 광산 김씨 등 4개였으며, 8명을 배출한 가문도 있었다. 전주 이씨 가문이 유일하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대제학에 오른 가문도 있었다. 안동 김씨, 의령 남씨, 교하 노씨, 창녕 서씨, 해주 오씨, 덕수 이씨, 연안 이씨, 풍양 조씨, 전주 이씨 등 9개 가문이 있었다. 형제 대제학도 2개 가문에서 나왔다. 광산 김씨



가문의 김만기와 김만중, 여흥 민씨 가문의 민점과 민암이 그들이다. 그러나 국반의 으뜸은 뭘니 뭘니해도 한 가문에서 대가 끊이지 않은 ‘3대대 대제학’이었다. 조선왕조가 국시로 내세운 유학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라는 사상에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연이어지는 대제학을 배출한 씨족을 국반의 으뜸이라 일컬었다. 안동 권씨, 연안 이씨, 광산 김씨, 전주 이씨, 대구 서씨 가문이었다. 이 ‘5대 가문’을 일컬어 명성과 실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 최고의 명문가라 일컬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강을 호수로 불렀다. 한양을 감싸고 흘러내리는 한강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동호東湖, 서호, 남호라 칭했다. 지금도 옥수동과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를 잇는 다리를 동호대교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강은 지나 깨나 흐른다. 잠시도 고여 있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언제 보아도 강은 세사없이 흘러내린다. 더구나 강은 눈에 보이는 윗물과 눈에 드러나지 않은 아랫물의 이중 구조를 띤다. 윗물은 햇살 아래 물비늘마저 오순도순하지만, 속살은 몹시 거칠고 사납다. 윗물은 잔잔한 호수 같아도, 아랫물의 유속은 격렬하기만 하다.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지도, 소리도 없는 아랫물에 의해 강이 흐른다. 탄은 아랫물이 윗물을 이끌어 강이 흐르는 것이다. 역사의 강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훈구다 사림이다, 노론이다 소론이다, 벽파다 시파다, 세도정치가 역사의 강을 주도한 것 같으나, 이는 सू제 윗물이었다. 역사의 전면에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진 않았어도 아랫물은 정작 따로 존재했다. 조선왕조를 지배한 사대부들의 오랜 꿈이기도 했던 최고의 명문가名門家, 곧 ‘삼한갑죽’이 그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조선왕조의 오백 년을 소리 없이 이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역사의 아랫물이었다. 숲속을 지배한 숲은 밤이었던 것이다.

권근, 열여덟 살 때 춘추관 검열로 출사하다
조선왕조 첫 번째 최고의 명문가 곧 삼한갑죽은 안동권씨 집안이었다. 안동 권씨 집안이 발돋움하여 비로소 조선왕조 ‘5대 명문가’로 떨쳐 일어난 건 양촌陽村 권근(1352~1409)에 이르면서부터였다. 그는 조선왕조 5백 년 동안 제수된 191명의 대제학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적바림한 인물이었으며, 한 집

안에서 대가 끊기지 않은 ‘3대대 대제학’을 배출하면서 명성과 실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 최고의 명문가로 일컬어지는 그 첫 번째 가문이기도 했다. 권근은 고려 공민왕 원년에 태어났다. 열일곱 살 때 진사進士를 뽑는 성균시에 급제했다. 이듬해 2명만을 뽑는 관시官試에서 발탁되었고, 같은 해 예소에서 치르는 2차 시험인 회시에서 목은牧隱 이색 등과 함께 3명이 선발되었으며, 같은 해 대과에 급제하면서 불과 열여덟 살의 나이로 출사했다. 첫 벼슬은 춘추관 검열(정9품)이었다. 이듬해 중국의 과거 향시鄕試에 급제(급제자는 3명)하였으나 열아홉 살이었던 권근은 성인인 25세 기준에 미달되어 중국에 가지는 못했다. 같은 해 예문관 수찬으로 승차한 데 이어 수직랑 밀직당후·선덕랑 장흥고사 겸 진덕박사·조청랑 태상박사 겸 진덕박사에 제수되었다. 공민왕 22년(1373)에 중국의 과거 향사에서 또다시 급제자 3명 가운데 한 명에 뽑혔다. 하지만 당시 22세였던 권근은 역시 연령 미달로 중국에 가지 못했다. 이듬해 공민왕이 궁궐 안에서 미소년 5명에게 시해弑害당했을 때 권근은 예문관 응교로서 원나라 사신의 입국을 반대하는 상소를 도당에 올렸다. 이는 목숨을 건 주청이었다. 이듬해 공민왕의 어린 아들 우왕(32대)이 열 살의 나이에 즉위했다. 권근은 삼사 판관·예문관 응교·예의정랑·군부정랑·춘추관 편수관 등에 제수되었다. 우왕 6년(1380) 과거 성균시를 관장하여 홍상민 등 110명을 선발했다. 3년 뒤에는 우왕의 음란한 생활을 비판하는 상소를 극간極諫(임금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고치도록 은 힘을 다하여 말함)했다. 우왕은 권근의 상소가 옳다며 마땅히 인간印判(인쇄하여 책을 출간함)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그는 우왕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도 상소를 올렸다. 국왕의 역린을 건드린 직간이었다. 이후 권근은 진현관 직제학이 되었으며, 관위위시사에 이어 다시금 과거 성균시를 관장하여 윤봉 등 61명을 선발했다. 이후 성균관 대사성·진현관 제학을 거쳤다. 우왕 14년(1388) 권근은 최영 장군과 대척점에 섰다. 중국의 요동 정벌을 주장하는 최영에게 숨은 흥계가 있다며 불복했다. 최영은 이성계의 도움으로 권력의 핵심인 이인임을 숙청했다. 하지만 이성계의 세력이 팽창하자, 최영은 다시 우왕과 음모하여 이성계를 숙청하려 들었다. 그리하여 명나라 황제가 요동을 공략할 때 요동 지역은 본래부터 고려의 영토이니,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을 붙여 정명론正明論을 주장했다. 이성계로 하여금 반강제로 출병토록 하였다. 이는 다른 게 아니었다. 승전하면 좋고, 패전하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이성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 흥계였다. 그러므로 권근은 여기에 반대하여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후 이성계는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우왕을 폐위시켜 강릉으로 추방하고, 최영은 시흥으로 유배시켰다가 훗날 수원으로 이감한 뒤 주살했다. 이후 권근은 예문관제학·춘추관 수찬관·밀직사·내시 다방사·보문각 제학·상호군上護軍이 되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음모
창왕 원년이자 공양왕 원년(1389)에 권근은 명나라에 다녀왔다. 문화평리인 윤승순의 부사로 친조사親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던 것인데, 예부禮部의 자문咨文(공문)을 갖고 귀국했다. 자문의 내용은 명나라 황제가 고려왕조의 우왕이 즉위한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당시 이성계 일파들조차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요승妖僧 신돈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그가 가져온 자문은 훗날 그만 화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두 달도 되지 않아 여러 대신이 은밀하게 회합하였다. 명나라에서 가져온 자문의 뜻에 따랐다. 창왕을 폐위시키는 한편 우왕과 창왕 부자를 참살하였다. 그리고 왕씨의 원족인 정창부원군을 응립하기로 했다. 그가 바로 고려왕조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34대)이요. 한때 삼사三司의 고위 관료들이인 대간臺諫들이 별 때처럼 들고 일어났다. 번갈아가며 상소를 올렸다. 요컨대 명나라 예부의 지문 내용을 권근이 미리 알고 있으면서, 국주에게 먼저 알린 것은 왕실에 동조한 행위라며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성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상소가 그칠 줄 몰랐다. 낭사郎舍 윤소종이 나서 권근을 처형할 것을 상소했다. 임금은 숙절없이 교지를 내려야 했다. 권근에게 곤장 1백 대를 치고 더 먼 지역으로 유배시키라고 명했다. 곤장을 맞은 뒤 황해도 금천에서 경북 영덕으로 이배移配(유배지를 다른 곳으로 옮김) 되었던 것이다. 자문사건으로 유배된 권근은 이듬해가 되었으나 좀처럼 풀려날 줄 몰랐다. 삼사의 대간들은 끈질기게 탄핵으로 내몰았고, 경북 영덕에서 영일과 김해로 몇 차례나 더 이배되는 고초를 치러야 했다. 더군다나 구 세력의 역모로 죄가 가중된 데다, 이색과 더불어 수십 명에 달하는 연루자로 지목되어 청주 감옥에서 극심한 국문을 당했다. 다행히 여름철 대홍수로 일시 방면될 수 있었다. 서거정의 필원잡기에는 당시 권근과 이색이 국문을 받다가 풀려나는 대목이 있다. 여말에 이색과 권근 두 선생이 청주 감옥에 체계建繫 되었는데, 국문이 극심하여 생사가 위급했다. 같은 해 여름 어느 날 새벽부터 종일 큰비가 쏟아져 내려 산이 무너지고 물난리가 일어났다. 성이 붕괴되고 두 선생의 숙소를 비롯하여 모든 인가가 침수되는 바람에 취조관이 물을 파내어 근근이 목숨을 부지하는 경계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길, “하늘이 여진 이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결국 두 선생은 천재로 인하여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홍수가 물러가자 이내 역산의 감옥에 재수감되었다. 이 무렵 권근은 자신의 첫 번째 저서인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서술한다. 그리고 같은 달에 정몽주의 상소로 겨울이 다가올 즈음에 풀려날 수 있었다. 공양왕 3년(1391) 마침내 특사령이 내려졌다. 권근은 하륜 등 수많은 인사들과 함께 종편되어 완전히 석방되었다. 이어 곧바로 한양으로 올라가서 사은숙배(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절을 올리는 일)하고 충주 양촌으로 낙향했다. 그리고 전부터 계획했던 “예경절차禮經節次”와 “역시시춘추천견록易詩書春秋淺見錄” 등 두 권을 저술했다. **권근이 막아낸 명나라와의 전쟁**

고려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왕조가 창건되었다. 세로이 등장한 정치세력의 주요 인물은 위화도 회군으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킨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었다. 태조 원년(1392) 고려왕조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 폐위되어 강원도 원주로 방치되었고,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격살당했다. 배극렴이 이성계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고, 그가 개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니 곧 조선왕조의 태조였다. 태조는 자신의 여덟째 아들인 이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했다. 이때 권근은 왕조의 창건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향리인 충주 양촌에 머물며 여전히 저술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가 비로소 태조의 부름을 받은 건 그 이듬해가 되어서였다. 태조 2년(1393) 이성계가 계룡산으로 행행幸行(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동함)할 때 첫 부름을 받았다. 이때 권근은 태조의 명을 받고 예문관 학사 정충과 함께 태조의 부친인 환왕桓王의 정릉定陵 비문을 찬撰(글을 짓거나 책을 저술함)했다. 그런 뒤 태조를 따라 개경으로 상경한 데 이어 성균관 대사성(정3품)에 제수되었다. 태조 5년(1396) 잔표撰表 사건이 일어나 정국이 발칵 뒤집혔다. 한 해 전에 하정사實正使 유순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정조표正朝表箋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정조표전 속에 명나라를 경박히輕薄 戲侮(가벼이 여겨 희롱함)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있다 하여 문서를 작성한 정도전을 당장 압송하라는 명나라 황제의 명이 떨어진 것이다. 정도전은 질병을 구실로 하여 일단 몸을 피했다. 누구도 정도전을 대신하여 명나라에 갈 대신이 없었다. 그 끈 골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성균관 대사성 권근이 나섰다. 태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을 구하기 위해 명나라 남경으로 떠났다.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다. 남경에 도착한 권근은 명나라 황제의 칙령에 따라 문연각에 유숙하면서 사흘 동안 남경을 유람했다. 그리고 명나라로부터 어제시御製詩 3편과 함께 잔치를 대접받은 데 대해 응제시應製詩 24편을 올렸다. 명나라 황제는 권근의 말에 공감하는 듯했다. 그 열법하다며 마침내 수급했다. 문연각에 투숙할 때 예우를 갖추도록 명했다. 또한 권근에게 광목훈과 더불어 음식을 하사하고 내부를 통하여 비단 의복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유사에 명하여 술과 안주와 기악을 갖추어 주연을 베풀게 하고, 사흘 동안 유가遊街(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경사의 하나)를 사하면서 부시賦詩를 지어 올릴 것을 명했다. 황제 자신도 친제시親製詩 3편을 내려 주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다가 극적인 환대를 받게 된 것이었다. 그는 사흘 동안 남경에서 유가를 즐겼다. 명나라의 큰 선비인 유삼오, 허균, 경청, 장산, 대덕이 등과 함께 어울리면서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진의는 마땅히 명나라 제국을 섬기려는 충성심에서였다”라고 말하면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 명나라 황제는 이를 듣고 가상히 여겨 권근을 조선왕조의 노실수재老實秀才라고 치하했다. 권근의 행장에 따르면, 그가 명나라로 출발할 즈음 이성계가 권근의 동생인 권우를 통하여 황금 10냥을 은밀히 건넸다고 한다. 그만큼 잔표 사건은 조선왕실을 크게 긴장시켰으며, 그가 아니었다라면 두 나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명나라 황제가 조선 정벌을 꾀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다음호에 계속)

권율 장군 집터와 수령 468년 압각수



권율 장군이 19살에 심었다는 은행나무



권율 장군 집터에 들어선 능라밥상



권율장군 집터 표지석

충장공 권율 장군이 살았던 집터는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18에 위치한다. 집터에는 수령이 468년이나 되는 은행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며 당당히 서 있다. 은행나무 밑 표지석에는 임진왜란에 행주대첩을 거둔 ‘도원수 권율(1537~1599) 장군 집터’라고 표시되어 있다. 또한 안내판에는 1976년 6월 5일 은행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였고, 지정일 기준 수령 420년, 나무 높이 24m, 나무둘레 680cm, 관리자는 종로구청장이라고 안내한다. 그렇게 계산해보니 은행나무는 권율장군이 19살 되는 해 1556년에 심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수령은 468년이 된다. 권율 장군이 살았다는 집터는 현재 능라밥상 식당이 들어섰다. 지난 12월 2일 식당에 들어가 안동 권씨 대종회에서 왔다고 했더니 주인 이애란 박사가 반갑게 맞이한다. 이애란 박사는 탈북 여성 제1호 박사로 유명하다.

이애란 박사는 집터와 은행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뜻밖의 제안을 한다. 3년 전에 이사 왔는데, 권율 장군의 집터라 해서 역사적인 장소라 너무 좋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능라밥상 식당에 권율 장군 모형을 도자기로 만들어 세워 놓고, 권율 장군 갑옷으로 어른 옷과 어린이 옷을 따로 비치해 두었다가 방문객들이 오면 그 갑옷을 입고 기념촬영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율 장군 칼과 창, 책자 등 기념품도 제작하여 판매하고 책자와 이야기 홍보물을 식당에 비치해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안동권씨 후손들은 성지순례처럼 방문하면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권율 장군은 문무를 겸전한 장군이어서 무관으로서 권율, 문관으로서 권율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권율 장군처럼 훌륭한 장군의 영화는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행안 편집국장



권행안 편집국장, 이애란 박사, 권주미 총무과장, 권기모 총무국장(왼쪽부터)

한 마을 출신 한학자 4인 등 추모 집회



죽헌정사 정례회

성) 공 형제를 모시는 모임으로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후 설암(권옥현), 청암(권청현) 등 후대 두 분까지 더하여 네 분의 문화생들이 제각기 결성한 계모임을 수년 전 (취세일사 미남 권사영(담락재) 공 등 다섯 분이다. 네 분 한학자는 같은 동네 출신으로 일한 권재환(상마재), 현암 권재성(근수계) 공은 간재 전우 선생과 석봉 오진영 선생 문하이고, 설암 권옥현(이동계), 경암 권청현(덕선계) 공은 영남 유학자로 명성이 자자한 주연 권용현 선생의 문인이다. 아울러 미남(권사영) 회장은 부산, 경남 일대에서 유학자로 추앙받는 설암 권옥현 선생의 장자로 부산에서 지수정기한 사업가이다. (취세일사 회장을 역임하면서 죽헌정사 건립, 설암 문집 발행, 삼산재 재건 등 지역 유림과 문중에 기여한 공이 높다. 이 모임의 시초는 1935(을해)년부터 후학 양성에 힘쓴 선대 일현(권재환) 공과 현암(권재